

제108호
91/11/21
값 1,500원

시사저널
WEEKLY NEWSMAGAZINE

시사저널 국내 최초 조사

13대 의원
성적표
이해찬 의원 1위

金勇舜 북한 노동당 실력자
“남북 동시 핵사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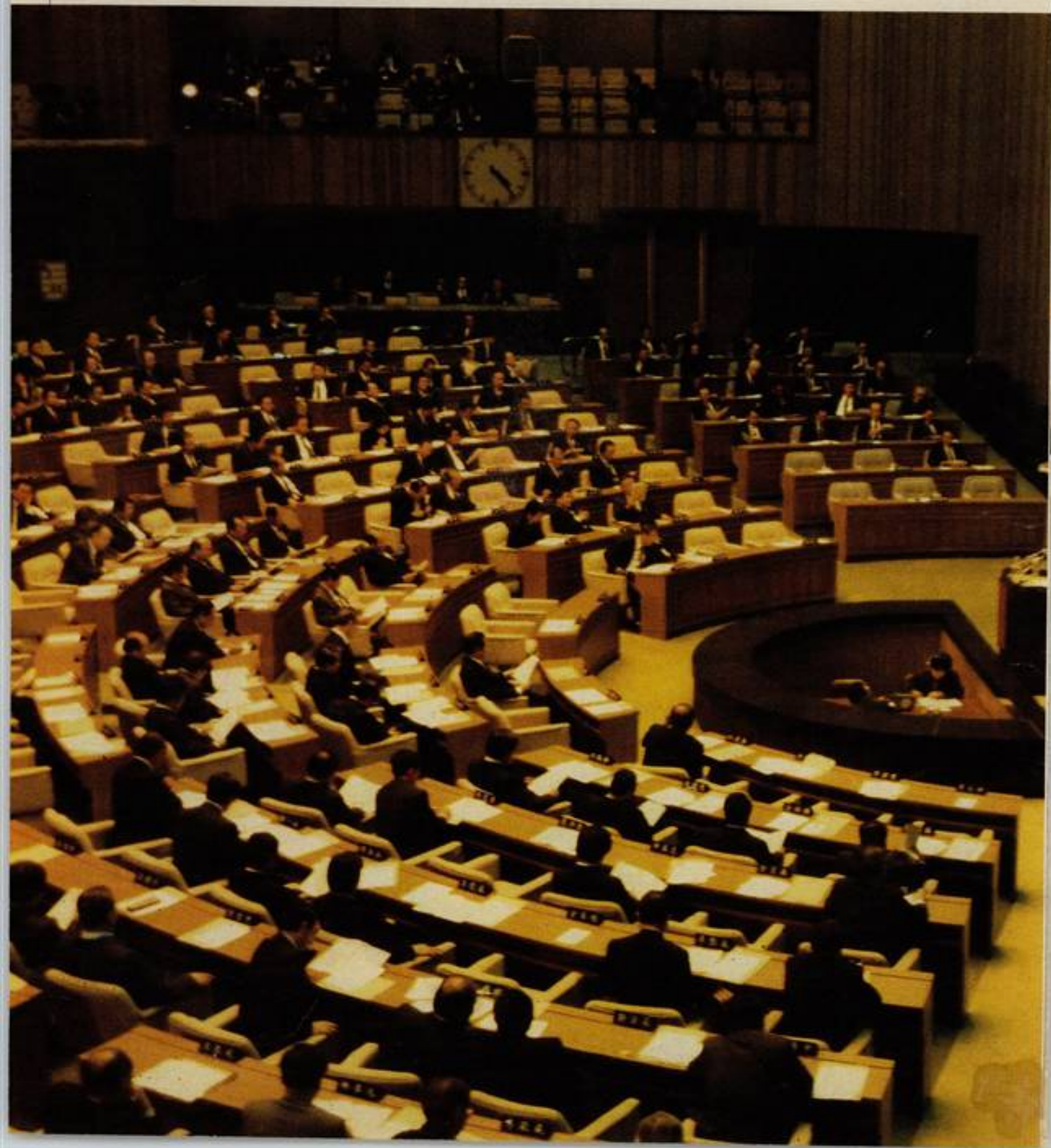
아이스 큐브 폭력음반 블랙코리아
韓·黑 갈등 2회전 돌입

〈시사저널〉

김광웅 · 김학수 교수

국내 최초 조사

의정활동 평점





1위 이해찬



■ 의정활동과 관련한 동료의원의 총 지목 빈도

- 38 이해찬(무소속)
 31 김대중(민주)
 29 조세형(민주)
 21 이철(민주) 이철용(무소속)
 19 노우현 조순승(이상 민주)
 18 김영삼(민자) 김원기 박석우(이상 민주)
 17 홍영기(민주) 김광일(무소속)
 16 박태준(민자) 유인학(민주)
 15 이협(민주)
 14 이종찬(민자) 김영진(민주)
 13 박관용(민자)
 12 박우병(민자) **박영숙(민주)**
 11 김인기(민자) 이희천(민주)
 10 김덕룡 강신욱 신영국 황병태(이상 민자) 박찬종(무소속)
 9 김종필 나용배 박경수(이상 민자)
 8 김중위 신상우 이치호 함종환(이상 민자) 박상천 정상용(이상 민주)
 7 강우혁 김운한 남재희 백남치 심원구 홍세기 황영수(이상 민자) 김덕규 문동환 임춘원 정균환 조승형 최낙도 허경만(이상 민주)
 6 김용태 김우석 이정무 황낙주(이상 민자) 양성우 정대철 최영근(이상 민주)
 5 김기배 박철언 서상목 이진우 이해구 장영철 정동윤 조영장 황윤기 황철수(이상 민자) 이형배 한광욱(이상 민주)
 4 강삼재 강성모 김용환 노홍준 박용만 백찬기 오한구 임인규 장경우 최기선 최형우(이상 민자) 강금식 김영배 김태식 이상수(이상 민주)
 3 김근수 김중권 김진재 김홍만 박병선 박준규 박태권 서청원 송두호 신영순 신오철 심정규 안영기 유학성 윤재기 이금규 이대엽 이덕호 이병희 이종근 이한동 정정훈 정창화 최정식 홍희표(이상 민자) 金正喜 김충조 이돈만 정웅 조홍규 최훈(이상 민주)
 2 강재섭 권해욱 김봉조 김영구 김인영 김진영 박승재 박정수 박희태 徐廷和 徐廷華 석준규 신재기 유돈우 윤길중 이민섭 이상득 이상하 이상호 이원조 이웅선 이인재 이춘구 이택석 전용원 정동성 정동준 정상구 정순덕 정일영 정재문 정종택 정해남 조경목 조부영 최이호 한승수 황성균(이상 민자) 김봉호 김영도 김종완 김주호 이수인 조찬형 조희철 허만기(이상 민주)
 1 고세진 구자춘 권달수 권현성 김동규 김동주 김문기 김병룡 김영선 김운한 김일윤 김재순 김정수 김종권 김한규 문정수 박재홍 박충순 신경식 신상식 신철균 실기섭 안병규 안찬희 오경의 오용운 오유방 유기수 이강희 이동진 이병용 이상희 이승윤 이자현 이태섭 정동호 조만후 채문식 최무룡 최문지 최재욱 허재홍 황대봉(이상 민자) 김남 김봉욱 김인근 김일동 노승환 박실 손주향 이경재 이교성 이기택 이영권 정기영 조운형 채영석 허탁 홍기훈(이상 민주) 박진구 서석재(이상 무소속)
 0 강보성 권오석 김길홍 김동인 김두운 김문원 김성룡 김용채 김장숙 김재광 金政吉 김재태 김종기 김종식 김종호 김태호 김현욱 나창주 노인환 도영심 문준식 문희갑 박재규 박종률 박준병 박지원 신진수 신하철 심명보 양경자 연제원 옥만호 유기준 유기천 유수호 유승규 유승번 유한열 윤성환 이광노 이기빈 이도선 이영문 이웅희 이윤자 이인구 이재연 이재황 이학봉 이행구 임무웅 정석모 정시봉 조남욱 지연태 최각규 최상진 황병우(이상 민자) 권노갑 김득수 김현 박종태 박형오 송현섭 신기하 신순범 오탄 유준상 이동근 이상욱 이재근 이천구 장석화 최봉규(이상 민주) 김길곤 이원배(이상 무소속)

■ 속의 숫자는
지목 빈도(이하 같음)

본회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의원

- 6 이해찬
4 신영국
3 김대중 이진우 황병태
2 노무현 박영숙 유인학 이정무 이 협 이 협 조순순 허경만
1 강성모 김광일 김영진 김일동 김정호 김진영 김진재 김홍조 김한규 박경수 박관용 박석무 박태준 신상우 심정구 오윤은 이상득 이영권 이종찬 이철용 이택석 이해구 장경우 정균환 정몽준 정창화 정해남 조세형 홍세기 홍영기 황철수

의원총회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의원

- 7 이협
2 김영배 김용환 김종위 노무현 박관용 이종찬 조세형 조순형 황낙주
1 강신욱 김원기 김정호 김홍조 남재희 박경수 박용만 백찬기 서상록徐廷和 석준규 오유방 이금규 이병희 이치호 이희천 전용원 정 웅 정균환 정순덕 정해남 조홍규 최무룡 홍영기 황명수

상임위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의원

- 5 박석무
3 박경수 정균환
2 김우석 김인기 노홍준 박우병 박태준 양성우 이돈만 이철용 이해찬 정상용 최이호 홍세기
1 강삼재 권현성 김기배 김덕룡 김봉욱 김영도 김영진 김주호 김종위 노무현 박병선 박영숙 백찬기 송두호 신영국 유인학 이 협 이경재 이병희 이상수 이수인 이용선 이정무 이희천 정동운 조세형 조순형 조찬형 조홍규 조희철 채영석 최 훈 최기선 최낙도 허 탁 홍희표 황철수

金在日 정치부처장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국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지역구

민은 자신이 선출한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른다. 의원을 감독·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없을 뿐더러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선거구민들은 국회의원의 홍보물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 의원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고작이다. 신문·방송에서 최고광찬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뽑은 의원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바꾸기도 한다. 폭로 잘하고 현시욕이 강한 의원은 매스컴의 상업성과 부합돼 각광을 받는 경우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용 파헤쳐 신선한 충격

소신대로 행동하는 운동권 출신... 정부·여당 승복시킨 치밀한 '추적자'

의정활동을 가장 성실하게 한 의원, 의회의 대정부 감독활동을 가장 잘 수행한 의원으로 동료의원들이 지목한 이해찬 의원(무소속·서울 관악을). 조선의원인 그는 그밖의 여러 부문에서도 빠짐없이 거론되어 '선량들이 뽑은 선량'으로 떠올랐다.

정기국회 회기가 한창이던 11월 초순 그를 만난 곳은 뜻밖에도 여의도 국회의 아닌 도심의 한 병원이었다. 그는 의사당에서 급배치를 받고 그 특유의 '바지런함과 극성'을 머는 대신 환자복을 입고 다스곳이 진찰받고 있었다. 지난해 수술까지 받았던 위궤양 증세가 다시 도지는 바람에 상임위 활동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입원했다는 설명이었다. 병색이 완연한 안색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달변은 여전했다.

학생운동권(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민통련 총무국장·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을 역임하며 재야운동권의 이론가이자 활동가로 꼽히던 그는 88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나온 거물급 여야당 후보들을 제치고 화려하게 진출했다. 그 자신의 표현을 따르자면 "순전히 평민당의 황색바람과 김대중 총재의 후광에 힘입은" 승리였다. 충청도 출신인 그가 얻은 유효득표수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몰려사는 호남 주민(30%)의 표였던 것이다.

'운동계 진출한 운동권'이라는 동료의원들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13대 국회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부터였다. 소속 상임위인 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일련의 노동악법 개정을 주도하고 각종 산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발하는 행락악으로 노무현 이상수 의원과 더불어 '노동위 3총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동원 이듬해인 88년말의 광주청문회에서는 한 월간지의 오보를 확인없이 인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全敎司 교훈집과 검찰청 검시조서를 발굴해내는 치밀한 자료추적으로 '청문회 스타'군단에 끼어들었다.

그러나 탁월한 분석력 합리성 치밀함 등으로 여당의원들조차 감탄하게 만든—결국 이번의 평가를 낳은—그의 의정활동은 89년말 정기국회 예결위 활동에서부터 두드러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의원은 우리나라 예산구조를 심도있게 접근하면서, 전체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한번도 총체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정부기금의 비대한 규모와 방만한 운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물었다. 예산에 대한 총론적인 이해 없이 농촌 부문이나 사회복지 등 지역적인 '각론'에만 매달리던 야당의원들의 관행에 비추면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이다.

조선의원인 그가 막강한 여야 중진들도 들어가기 힘든 '예결위의 꽃' 제수조정소위원회에 발탁된 것도 예결위에서 워낙 발군의 실

도 많다. 그러나 마스크를 잘 타는 의원의 대중적 인기가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은 왜곡된 정보에 노출된 채 다시 선거를 맞는다.

의정 현장과 자료로 의원활동 평가

13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시사저널>은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했다. 김광웅 교수(서울대·정치학)와 김학수 교수(서강대·신문방송학) 팀이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국내 최초로 행한 이번 조사는 의원들의 실제 의정활동을 구체적인 현장과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13대 국회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국회의원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의원들의 자제 평가 및 의식조사 등에 관한 질문도 포함돼 있는 이 조사에 응답한 의원은 1백98명으로 66%의 응답률을 보였

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원에게 의해 이뤄졌는데 여기에는 87명이 참여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은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전제에 바탕한 것이다. 다만 의원이 직접 응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의 응답으로 대체했다.

조사결과 무소속 이해찬 의원(서울 관악)이 '수석'으로 떠올랐다. 그는 국회 본회의

활동에서의 성실성 부문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나 대정부 감독활동 항목에서 동료 의원들의 지목 빈도가 가장 많았다. 그는 본회의에서의 논리적 발언과 국정심의 공정성,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국정심의 전문성 부문에서도 상위를 차지했다. 종합 지목 빈도에 있어서도 이의원은 총 38번으로 2백98명(고 김동영 의원 제외)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광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당시 신민당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공천을 준 데 불만을 품고 당을 뛰쳐나와 현재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그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이런 평가는 매우 주목된다.

동료 의원 평가 19개 항목과 기록 자료를 토대로 한 3개 항목 등 총 22개 항목에서 두번 이상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이해찬 의원 외에 김인기(민자·전국구) 박석무(민주·전남 무안) 조세형(민주·서울 성동) 김광일(무소속·부산 중) 의원이 있다.

국회 본회의 활동에서의 성실성이



이해찬 의원. 성실성과 국정감사 두 분야에서 최다 득표를 했다.

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졌던 폭넓은 활동공간과 권리를 심분 활용해 제몫을 했다"고 자부하는 대목은 이른바 '안면도 해폐기장' 관련 감사활동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안면도 해폐기장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어떠한 계획도 확정지는 바 없다"는 과기처의 완강한 주장에 이 의원은 해당부처의 '90년도 방사선 폐기물 운용계획'에 나타난 정부예산 편성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와 논거를 연달아 제시하며 맞선 끝에 마침내 관계부처로부터 "문서를 소각해 잘 모르겠다"는 항복성 대답을 끌어냈다. 당시 정부관리들이 야당위원의 맹공세에 시달릴 때면 으레 '업호사격'과 맞고할 공세로 대응하곤 하던 여당의원들조차 경청했을 정도로 치밀한 포위작전이었다.

"예산집행과 행정집행 과정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 정부문서를 찾아들어 정부측에 확인시키는 과정을 밟았다"고 당시를 술회하는 이 의원은 "광주특위에서의 문서검증 경험과 예결위에서의 예산검증 경험을 쌓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발군의 의정활동이 순전히 의원의 막대한 노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국회 보좌팀과 지역연구소의 후배들이 "보다 합법적인 공간에서 더 많은 일을 하셨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진출한 대학선배를 뒷전에서 열심히 도운 것도 큰 몫을 했다. 그가 말끝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연유다.

이의원의 합리성은 개인적인 면모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난다. 공식적인 회의가 있는 날에는 반드시 넥타이를 맨 청장차림을 하지만, 평상적인 외출에는 7년 전부터 입던 허름한 갈색 가죽점퍼

를 즐겨 입는다. 뇌물외유 사건으로 의원들이 무조건 외유를 거릴 때도 "가야 할 일이면 가야 한다"며 국제회의 참석을 강행했고, 세비인상 문제로 언론이 선량들의 후안무치를 질타할 때도 "세비 인상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개진했다.

다소 '성마른' 성격인 만큼 정치인으로서의 이의원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다. 광역의회 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돈을 받고 공천하는 정당은 수권 못한다"며 탈당을 감행했던 그의 행동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조직인, 정치인으로서의 성급한 행동이라는 원론적인 비판과 함께 청문회 스타 신드롬에 걸려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이해찬 의원 자신도 평민당 탈당을 "결코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인다운 행동은 아니었다"고 털어놓는다. 내년이면 불혹으로 접어드는 그가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인으로서 좌절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이는 민주당의 공천여부와 함께 정치권의 관심거리다.

徐明淑 기자

행정부 긴장시키는 의회 모범생

교권확립특별법 입법한 교사 출신... 교수 복직 등 청원도 최다

시골 학교 선생님 같은 털털한 인상에 두루마기 차림이 어울리는 사람. 겉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박석무의원(민주·전남 무안)은 "싱싱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한다. 그에게 '싱싱하다'는 말은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지만, 의정활동에서 선비 기질을 발휘할 때면 전혀 낯설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다.

"상임위 활동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고, 입법활동을 가장 잘 한 국회의원"으로 뽑혔다는 말을 듣고는 "과수꾼 노릇을 했다고 자임하지만 아쉬움이 더 많다. 그러나 후회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의욕을 과시한 박의원원은 "국회의원이 부패하면 행정부에서 무서워하지 않는다. 행정부를 늘 긴장시켜야 한다. 보좌관이 써준 절의서나 읽고 있으면 행정부 공무원들도 웃으면서 답변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모범생'으로 통한다. "상임위원 본회의원들 늘 의석을 지키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박의원이다. 10여년이 넘는 교사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공보위(전반기 국회)에서 교육문제에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교육체육청소년위에 소속된 뒤에는 체육부의 골프장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박의원이 13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은 영화진흥법안, 교권확

립을 위한 특별법안, 교육자 처벌법안 등 총 18건. 입법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셈이다. 청원도 가장 많이 처리해냈다. 13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만도 대학교수 복직에 관한 청원, 교과전담제 실시를 위한 청원 처리 등

총 8건이 박의원의 작품이다. 특히 교장임기제를 도입하고 교권확립특별법안을 만들어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문화·공보와 문교·체육 분야에서 장기를 발휘한 셈.

박의원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지역구 주민들 대부분이 농민인 탓에,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의정활동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박의원 자신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에게는 평가를 못받는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집단이기주의를 안타까워 한다. 茶山學에 해박한 그는 의정활동 틈틈이 학문에도 몰두, 다산의 서간문을 모아 번역한 '유배지에서 온 편지'의 중보판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박석무 의원

관 발언 준비,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사적 태도, 회의 중 자리를 지키는 행위 등과 관련이 있다. 2위는 신영국 의원(민주·경북 청송 문경) 공동 3위는 김대중(민주·전국구) 이진우(민주·경북 포항) 황병태 의원(민주·서울 강남 갑) 등이다. 이밖에 이정무(민주) 노무현 박영숙 유인학 이철 이형 조순승 허경만 의원(이상 민주)이 성실하게 본

회의 활동을 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동료 의원 한 사람에 의해 성실하거나 유능한 의원으로 지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무게를 지닌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일 정도로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의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의원총회에서 성실한 활동으로 돋보인 의원으로는 단연 이형 의원(민주·전북 이리)이 지목됐다. 그는 13평 아파트에 사는 청렴한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의원총회에서의 성실성이란 소속 정당 활동에 대한 충실성 등

본회의에서 논리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

- 8 김광일
- 6 박찬중 이해찬
- 5 김대중
- 4 조세형 조순승
- 3 박관용 황병태
- 2 김영진 박상천 신상우 유인학 이 철
- 1 강금식 김덕규 김우석 김홍만 나웅배 서상목 신오철 이승윤 이치호 장경우 최낙도 최영근 최재욱 한승수

의원총회에서 논리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

- 3 이치호 정대철 조세형 최영근
- 2 김덕룡 김종위 나웅배 남재희 유인학 장경우 황낙주
- 1 강신욱 권해욱 김광일 김원기 김종권 김홍조 노무현 문동환 박관용 박석무 서상목 신상우 유기수 이상수 이해찬 이 철 정동윤 조순승 최정식 허경만 황명수

상임위에서 논리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

- 3 박우병 홍영기
- 2 강우혁 이 철 이철용 이희천 정상용 조세형 조순승 최낙도 황윤기
- 1 강신욱 강재섭 구자춘 김영도 김종위 김태식 노무현 노홍준 박경수 박관용 박석무 박승재 박찬중 박대권 박태준 백남지 서상목 徐廷華 송두호 신영순 안영기 이교성 이덕호 이상하 이인재 이정무 이종찬 이치호 이한동 이해찬 이형배 임춘원 장영철 정 웅 정정훈 조만후 함종한 허경만 황성균

“국회사에 한획 그은 명연설”

당파 초연한 재야 변호사 출신... 논리성과 공정성에서 으뜸

13대 국회 초반부터 유권자들은 이전 국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명쾌한 연설을 잇따라 들을 수 있었다. 부산지역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무명 초선의원에 지나지 않았던 김광일 의원(무소속·부산 중)의 경우가 그러했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88년 142회 국회에서 그는 정기국 대법원장 임명동의건에 대한 발언(7월2일)을 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법원장 인준이 비토되는 ‘사건’을 낳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이를 후인 7월4일 그는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는 5공의 연장인데 어떻게 해서 6공화국이나”고 또 한번의 안타를 날렸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우리 의정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한 논리를 결집한 우수한 내용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연설은 12대 국회의 대정부 질문 의사록을 모두 복사, 치밀한 분석을 거쳐 나온 역작이었다. 김의원은 5일 후인 7월9일 양심수 석방 결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통해 다시 국회 연설사에 한 획을 긋게 된다. 발언 수위가 최고도로 올라갔던 이날 찬성토론은 당시 민정당측의 거센 항의에 김의원이 “탱크 가지고 쏘아보시지! 총으로 쏘아보시지!”라고 맞서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3당 합당에 반대해 구 민주당에 남았던 그는 이번 야권 통합에 다시 반대함으로써 “여아라는 당파적 입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길을 따라간다”는 정치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소신’으로 인해 그는 본회의 질문의 논리성 말고 국정심의에서도 가장 공정성을 지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열식 질문과 종합적인 답변만으로 끝나는 현재 같은 국정심사로는 정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그는 본회의나 상임위를 불구하고 의원들의 발언 행식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인사 청문회와 함께 입법 청문회가 활성화되어야만 방만한 국회 운영을 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고 다닐 때부터 국어가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정확한 용어 구사와 논리적 어법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같은 청문회 스타로 자라난 노무현 대변인(민주·부산 동구)이 변호사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변론술을 지도하기도 했다.



김광일 의원

당내 활동의 평가 기준이다. 여당 의원의 경우 상임위에서는 정부를 두둔하느라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더라도 당내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꽤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총회에서 발언 내용은 당내 민주화, 혹은 지도부에 대한 공격 등으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는 쟁점과 내용이 다르다. 어차피 본회의 발언 기회

는 의원 전부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은 의원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상임위 활동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으로는 박석무 의원이 꼽혔다. 박경수(민자·강원 횡성 원주) 정균환 의원(민주·전북 고창)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임위 활동은 의정활동의 본령이라고 할 만큼 국회의원

에게는 중요하다. 상임위야말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뿐 아니라 법안을 심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마당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크게 돋보일 수밖에 없다.

논리적인 발언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은 누구인가. 본회의에서 가장 논리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사람은 김광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나 대정부 감독활동을 잘하는 의원

- 7 이혜찬
- 6 이 철
- 5 이철용
- 2 김영진 김중권 박찬종 조세형 홍영기
- 1 강금식 강삼재 강우혁 김광일 김덕룡 김명선 김홍만 박관용 박준규 양성우 유인학 이 철 정균환 정종택 홍세기 황명수

의원총회에서 대정부 감독활동을 촉구하는 발언을 잘하는 의원

- 3 조세형
- 2 조부영
- 1 강삼재 강성모 권해옥 김광일 김덕규 김병룡 김영진 김용태 김운환 김원기 남재희 노무현 박관용 박상천 박용만 서청원 신상우 심정규 유인학 윤재기 이강희 이돈만 이종찬 이혜찬 조홍규 한광옥 홍세기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나 대정부 감독활동을 잘하는 의원

- 4 이철용
- 3 박석무 조세형
- 2 김덕룡 김영진 신영국 이형배 정상용 조영장 홍영기
- 1 강성모 강신욱 김기배 김동주 김우석 김일운 문동환 박영숙 박우병 박태권 백남치 안병규 양성우 유인학 이덕호 이성호 이치호 이혜찬 이희천 임인규 임춘원 정 웅 정균환 정몽준 정정훈 조승형 조희철 최 훈 최기선 최낙도 최문지 최정식 함종한 홍세기

본회의에서 국정심의의 공정성을 잘 지키는 의원

- 4 김광일
- 3 이해찬
- 2 김원기 남재희 오한구 조순승
- 1 김봉조 김영배 김용태 김홍만 나용배
노무현 문동환 박관용 박 실 박정수
신상식 양성우 윤재기 이상희 이수인
이 철 이철용 이춘구 이 협 정대철
정동운 허경만 홍기훈 홍영기

박관용(무소속·서울 서초 갑) 이해찬 김대중 조세형 조순승 박관용(민자·부산 동래 갑) 황병태 의원 등이다.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서 논리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는 여당에서 이치호 의원(대구 수성) 야당에서 정대철(서울 중구) 최영근(전국구) 조세형 의원(이 가장 많은 빈도를 기록했다.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국정심의의 공정성을 잘 지키는 의원

- 4 김인기
- 2 김원기 박경수 서청원
- 1 강재섭 김근수 김기배 김대중 김덕규
김용태 김인영 김종완 김진재 김태식
노홍준 박승재 박영숙 박우병 박충순
백남치 심완구 오경의 오한구 유인학
이상득 이원조 이 철 이해구 이형배
이희천 조세형 조순승 조승형 최낙도
최영근 한광록 함종한 허만기 홍영기

가장 논리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사람은 박우병(민자·강원 정선) 홍영기 의원(민주·전북 임실 순창)이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대정부 감독활동은 국회 기능의 본질에 해당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캐내고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일은 야당위원의 '야당성'이 특히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지난 정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나란히 신민당을 탈당한 이해찬 이철용 의원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의원총회에서 대정부 감독활동을 촉구하는 발언을 잘하는 사람은 조세형 의원에 이어 조부영 의원(민자·충남 청양 홍성)이 꼽혔다. 이들은 상임위 활동이 부진할 때 당 소속 의원을 독려, 심기일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대정부 감독활동을 가장 잘하는 의원으로는 이철용 박석우 조세형 의원이 거명됐다.

존경·신뢰받는 의원은 YS·DJ順

국정심의의 공정성은 국회의원에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본회의 발언에서 국정심의의 공정성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김광일 이해찬 김원기 남재희 오한구 조순승 의원이 거명됐다. 이들은 비교적 도덕성이 강하고 혈연·지연·학연에 휩쓸리지 않는 것으로 평가

발뺨 행정에 전천후 감사 폭격

발로 뛰는 국졸 출신... 붕고 타고 증거 수집, 분야마다 '어사' 노릇

“정치 신화를 창조하겠다”면서 고급 승용차 대신 9인승 붕고 타고 여의도로 돌진해 들어간 ‘전천후 폭격기’ 이철용 의원(무소속·서울 도봉을)은 13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나 대정부 감독활동을 가장 잘하는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전천후 폭격기’라는 별명은 그가 소속 상임위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복지·보건·환경 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 ‘어사’ 노릇을 하기 시작하자 소속 정당이었던 평민당에서 붙여준 애칭이다.

국회에 발을 디딘 첫째날 ‘국회대학 1학년’에 입학했다”고 동원 소감을 밝혔던 국졸 학력 의원. 그는 국회에서 발행하는 ‘국회수첩’의 의원 경력난에 자신의 경력을 한글로만 써넣은 유일한 사람이다. 이의원은 동원하자마자 행정부처의 ‘구색행정’과 ‘전시행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 부근 오염 현장을 사진으로 포착해 환경처 공무원들 앞에 들이밀자 ‘수돗물 의원’이 되었고, 유명 백화점에서 한우 쇠고기를 사서 마장동 쇠고기 시장에 감정을 의뢰해 수입 쇠고기임을 밝혀내자 ‘발로 뛰는 의원’이라는 별명이 또 붙었다. 그는 “환경정책은 낙후된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말한다. 해당 부처의 일부 공무원은 자신들을 혼쭐내는 이의원을 지긋지긋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끼고 격려한다. 부처 내 비리를 제보해주는 이들도 없지 않다.

“근거나 입증 자료가 없으면 행정부처의 오리발작전에 말려들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

이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해 발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가 예산감사권을 틀어잡고 있으면 정부가 ‘장난’을 칠 수 없으며, 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국가의 총예산이 크게 국방·경제·교육·사회 등 4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13대 국회에 들어와 보니 사회개발비가 겨우 8.1%뿐이었다.” 그는 사회개발 분야의 ‘예산 타내기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3년 투쟁’ 결과 사회개발비는 11.1%가 되었다. 그래도 그는 만족하지 않는다. “적어도 2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빈민운동가 출신이기도 한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 추경예산위원회에서 한 차례 활동한 덕분에 이제는 나라 전체의 돈 씹씹이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가지게 되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그는 ‘전국구 의원’이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지역구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폭격기는 조용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늘 평음을 낸다. 지난 정역 선거를 앞두고 이해찬의원과 함께 신민당을 탈당. 또한번 ‘평음’을 낸 이의원의 정치적 장래가 관심거리이다. ■



이철용 의원

국회 전체에서 존경·신뢰받는 의원

- 10 김영삼
- 9 김대중
- 8 박태준
- 7 김종필
- 3 김원기 김윤환 노무현 박철언 이해찬
- 2 조세형 황영수
- 1 강신욱 김성룡 김재순 남재희 박준규 박희태 신상우 유학성 윤길중 이 철 이철용 이한동 장영철 조순승 최형우 한승수 홍영기

의원총회 발언으로 존경·신뢰받는 의원

- 5 김원기
- 3 김윤환 최형우
- 2 김영삼 김용환 노무현 박태준 정대철 조순승 조승형
- 1 김대중 金正吉 박관용 박정수 신상우 오한구 이동진 이상수 이성호 이진우 이춘구 이해구 이 협 정상구 정순덕 정재문 정정훈 조세형 허경만 홍세기 황낙주

상임위에서 존경·신뢰받는 의원

- 3 김인기
- 2 문동환 박영숙 이종근
- 1 강금식 강신욱 감우혁 김근수 김기배 김 남 김덕룡 김봉조 김영진 김원기 김진재 박병선 박용만 박재홍 박태준 백남치 徐廷華 신경식 신철균 심기섭 심완구 윤길중 이덕호 이민섭 이원조 이용선 이종찬 이철용 이해찬 이희천 임춘원 장영철 정상구 조세형 조순승 조영장 채문식 최영근 한광욱 홍영기 황영수

받은 것이다. 상임위에서는 김인기 김원기 박경수 서청원 의원 등이 국정심사의 공정성을 잘 지키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원은 누구인가. 국회 전체로는 김영삼 김대중 박태준 김종필 의원의 순으로 거명됐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정계의 지도자들로서 여야의 대표, 혹은 재보의 보스들이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들은 존경과 신뢰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사단을 거느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모른다. 이들 외에도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는 김원기 김윤

환 노무현 박철언 이해찬 의원 등이 있다.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서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는 김원기 김윤환 최형우 의원이 꼽힌다. 두 김 의원은 제6공화국 초기에 여야의 총무로 활약한 데 이어 지금은 각각 여야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상임위에서 가장

군출신 한계 극복한 직능대표

교통정책에 일가견, 전직 공참총장... 가장 공정한 의원에 뽑혀

공군참모총장 출신 김인기 의원(민자·전국구)은 상임위에서 국정심사의 공정성을 가장 잘 지킬 뿐 아니라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원으로 뽑혔다. 6·25가 터진 다음해 19세로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했던 그는 36년 동안 '보라매'로만 일관했다. 김 의원은 교체위에서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군출신이 흔히 겪기 쉬운 한계를 극복하고 직능대표로서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살려가는 경우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안동 김씨가 배출한 유일한 4성장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는 '안동 양반' 특유의 고집스러움과 깨끗함이 엿보인다. 공군 참모총장 시절 가장 강직한 군인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금의 보좌관은 군 시절부터 그가 데리고 있던 수행장교 출신인데, 1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는 점을 보면 그의 성격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성품은 14대 총선 관련 거취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지역구 출마설에 대해 "당내 인사들이 이중 삼중으로 조직책을 신청해놓고 있는 마당에 내가 끼여들 여지가 없다"면서 "군에 있었을 때처럼 조직이 나가는 방향에 따를 뿐"이라고 말한다.

그가 교체위를 택한 이유는 통신과 컴퓨터 등이 공군에서도 발달돼 있는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근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을 보면 교체위원으로서 그가

얼마나 열심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중의 하나는 국내 민영 항공사들의 대외 경쟁력 문제이다. 그는 "앞으로 세계 항공사들이 대략 10여개 정도로 정리되면서 항공 운송사업에 커다란 변화가 닥쳐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운임 경

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도 항공사가 4개로 정리되는 중이고, 유럽 공동체(EC)도 각 나라의 항공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판국에 국내에서는 복수 항공시대가 열린 만큼 이들간의 과다 경쟁 같은 문제점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외국 거대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지적했다.

교통부의 내부 구조 문제도 그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다. 그는 "철도는 철도청이, 해운과 항만은 항만청이, 육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교통부가 다 책임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교통부는 권한도 없고 역할도 아주 애매모호하므로 교통부는 그야말로 정책 차원의 일만 담당하든지 업무 세분화에 따른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인기 의원

신뢰받는 사람으로는 김인기 의원이 지목됐다. 그 뒤를 이어 문동환 박영숙 이종근 의원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정치 민주화에 기여한 의원으로는 민주당의 김대중 공동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야당의 당수로서 탄식투쟁을 통한 지자제 실현, 야당통합 등이 고려됐을지하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와 이종찬 의원도 비교적 높게 평가받았다. 그리고 노무현 김종필 강신욱 김원기 박철언 황병태 의원이 정치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국정심의의 전문성을 잘 갖춘 사람으로는 나용배 박석무 황철수 의원(민자·경기 과천시 흥왕 군포)이 거명됐다. 강우혁 박영숙 박우병 유돈우 유인하 이해찬 이희천 임인규 조영장 의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임위 입법연구활동과 관련해서는 박상천 박석무 함종한 의원(민자·강원 원주)이 공동 1위에 올랐다.

선거구를 잘 관리하는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관리를 잘한

정치 민주화에 기여한 의원

- 12 김대중
- 6 김영삼
- 5 이종찬
- 4 노무현
- 3 김종필
- 2 강신욱 김원기 박철언 황병태
- 1 김광일 김영배 김윤환 김인근 노승환 박관용 박상천 박준규 박태준 신오철 유인하 이기택 이 철 이치호 이해찬 조순승 조윤희

다는 것은 선거구면과 그만큼 밀착해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모범적으로 선거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는 이대엽(민자·경기 성남 갑) 이종찬 이철 의원이 거명됐다. 특히 이대엽 의원은 상을 당한 지역구민의 집에서 조문객과 함께 밤새워 술을 마시는 등 '몸으로

때우는' 표발관리로 유명하다. 상임위에서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심원구 의원(민자·경남 울산 남)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김영진(민주·전남 강진) 김용태 박영숙 조경목 의원 등이 거명됐다.

한번도 거명 안된 의원 76명

다음으로 의원들의 직접 평가 이외에 국회의 기록 자료를 살펴보자.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10회 이상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모두 22명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20회 이상 제출한 사람은 유인하 홍영기 박석무 의원이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3번 이상 활동한 의원은 39명이다. 그중 서상목 의원(민자·전국구)은 5번이나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예결특위에 들어간 것까지 합쳐 총 6회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청원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국가와 국민의 거리를 좁혀준다는 점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

국정감사 부활에 수훈 갑

입법실적 제일 많은 판사 출신... 양곡관리법 등 35개 법안 통과에 앞장

동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입법연구 활동을 가장 잘한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지목한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민주·전남 고흥). 그는 88년 5월 구성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평민당측 간사로 활약하며 40여개 법률안을 직접 기초해 그중 35개를 통과시켰다.

그의 공로 중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농·수·축협장의 직접선거를 규정한 농·수·축협법 개정, 추곡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 그리고 정역 살고 나온 사람을 무한정 가둬둘 수 있었던 사회안전법 폐지 등이다. 특히 그는 국회를 통과한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을 때 이를 닦아내 여당과 재협상,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당시 국회 반대토론이 끝난 후 민주당의 박태준 최고위원까지 "들던 중 가장 명연설이었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박의원은 이 법에 의해 국정감사가 부활됐을 뿐 아니라 국정조사의 한 방법으로 광주 특위와 5공특위가 구성된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제법 제정 때는 입법 뿐 아니라 여당과의 협상에서도 솜씨를 발휘했다. 3당 합당 이후 민주당은 4당체제 때 합의한 지자제 실시 약속을 파기하려고 했다. 여당은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탄식을 계기로 지자제 실시 방침을 정한 후에도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안 치르려고 했다. 이때 박의원은 여당측과의 협상을 통해 자치단체장 선거를 있게 한 숨은 공로자로 꼽힌다. 박 의원은 지금 진행중인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에서 민주당측 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61년 전남 광주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67년 6월 순천 지청장을 끝으로 법조계를 떠났다. 그리고 '일부러' 시골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정계진출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그뒤 87년 대통령선거 때 김대중 후보를 도운 인연으로 정치에 입문. 13대 국회에 진출했다.

박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야당의 정책이 합리적인 대안이 되도록 노력한 데 대해 특히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국회 입법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력 간의 힘겨루기로 결정될 때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토로한다. "좀더 자유롭고 개성이 존중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익을 맡기를 원합니다."



박상천 의원

평소 닭은 공, 선거 때 돈 안써

지역구 관리 1인자. 배우 출신... 상임위장 연임, 성남에 지하철 끌어

국회 교제위원장실의 車明弘실장은 3당 통합 직후 한번 애플 먹은 적이 있다. 청와대에서 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한 만찬이 있었는데 이대엽 의원(민자·경기 성남)이 지역구에 약속이 있다며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다. 이 에피소드는 즉시 국회 주변에 널리 퍼졌는데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 의원을 잘 아는 동료 의원이나 주변 인사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이날 청와대 만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이의원을 앞으로 불러냈다. 그 이유인즉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의원에게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노력밖에 없다. 남들보다 한발 먼저 앞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여당 의원은 일보가 아니라 일백보를 앞서야 한다."

성남은 전국에서 가장 지역구 관리를 하기 어려운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유권자의 70% 이상이 호남 출신인데 서울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3년마다 한번꼴로 유권자가 많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지닌 성남에서 경남 마산 출신인 이의원은 "형님"으로, 때로는 "대엽아!"로 불린다. 그의 표현대로 "양복쟁이하고 어울리기보다 '잠바때기'하고 어울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는 가장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꼽힐 만하다.

그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부분의 시간이 지역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이렇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돈 걱정 먼저 하는 동료의원들이 이상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

다. "평소에 잘하면 선거 때 무슨 돈이 필요하나"는 지론이다. 그는 노승환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주례를 가장 많이 선 의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내년 2월까지 '주례 스케줄'이 모두 마감된 형편이다.

이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교통체신위원을 지키고 있다. 노론자위 상임위도 아닌 교제위원을 고집하는 데에는 "교제위원으로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다룬다"는 우직한 생각이 작용한 까닭이다. 이런 우직성 때문에 성남에 지하철도 놓이게 되었다. 교제위의 분위기가 바뀐 것도 그 때문이다. 질의하는 동료 의원이나 답변하는 장관은 우선 교제위의 터줏대감인 그의 눈치부터 살펴야 한다. 걸릴기식 질문과 이질론 대답에는 이위원장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13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연임한 유일한 기록을 세운 것도 그의 이런 성품 탓일 게다. ■



이대엽 의원

을 것이다. 유권자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의원은 실제로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 5회 이상 국민의 청원을 처리한 의원은 10명이었고, 그중 최정식 의원(민자·강원 속초 고성)은 가장 많은 11건의 청원을 처리했다.

동료의원 총 지목 빈도를 보면 1위의 이해찬 의원에 이어 2위는 김대중, 3위는 조세형 의원이 각각 차지했다. 특히 조세형 의원은 총 19개 평가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거명돼 여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비교적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박

우병 김인기 의원이 국회 내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결국 언론이 주로 국회나 정당의 상위 직책을 맡은 의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번도 거명되지 않은 의원이 76명(민자 58명

상임위에서 국정심의의 전문성을 잘 갖춘 의원

- 3 나용배 박석무 황철수
- 2 강우혁 박영숙 박우병 유돈우 유인학 이해찬 이희천 임인규 조영장
- 1 강삼재 강신욱 김근수 김기배 김덕규 김영진 김인기 김인영 김진영 노우현 박명선 박상천 박찬종 백남치 신영국 신영순 심원구 이병룡 이상수 이정무 이진우 이 철 이철용 이 철 임춘원 정일영 정종택 조순승 최 훈 최기선 함종환 홍영기 황낙주 황대봉 황윤기

상임위에서 입법 연구활동을 잘하는 의원

- 3 박상천 박석무 함종환
- 2 김덕규 김덕룡 신영국 신재기 정상용 조세형
- 1 강금식 강신욱 강우혁 고세진 김영진 김우석 김인기 김주호 김중위 나용배 문동환 박영숙 박우병 박태권 서상목 석준규 손주환 송두호 신상우 신영순 안찬희 양성우 유인학 이금규 이상하 이인재 이 철 이철용 이태섭 이해찬 이희천 장영철 정기영 정동운 정창화 최낙도 허만기 홍영기 황병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잘하는 의원

- 3 심원구
- 2 김봉호 김연진 김용태 김태식 박영숙 박우병 백남치 안영기 이철용 이해찬 조경록 함종환 홍영기 홍희표
- 1 강성모 권달수 김덕규 김덕룡 김동규 김중근 나용배 문동환 박석무 백찬기 신오철 유인학 이민섭 이해구 이형배 이희천 임인규 임춘원 정동운 정일영 정재문 조세형 조찬형 허경만 허재홍

예산심의 급소 잘 짚는 '명의'

경찰 장비 현대화 예산 따낸 예결위 재사... 결산 심사도 엄격해

예결위원회가 국회의 꽃이라면 계수조정소위는 예결위의 꽃이다.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거의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당 6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되는 이 소위원회에 들어가기에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 심원구 의원(민자·경남 울산 남)은 90년 예결위에서 처음으로 이 소위에 참여했다. 당연히 그에게는 많은 의원들로부터 '메모'가 쏟아져 들어왔다. '메모'란 지역구 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이 담긴 쪽지를 말한다.

심위원이 '메모'들을 모아 종합목록을 만들어 보았더니 무려 수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그는 이 '메모'들을 하나도 반영시켜 주지 못했다. 막상 계수조정소위의 멤버가 되고보니 지역사업보다 시급한 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는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가장 잘 하는 의원으로 뽑혔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것이 그가 가진 경제분야 경험의 전부였지만 민자당 경제전문위원 韓利憲씨도 놀랄 정도로 예산 심의의 급소를 잘 짚었다는 후문이다.

그는 상임위 예산 조정에서 경찰의 무선방식을 종전 VHF 방식에서 UHF 방식으로 바꾸는 예산 1백20억원을 따냈다. 이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거의 반영되지 않을 뻔했던 예산이었다. 그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당대에 경찰의 시설과 장비가 전근대적이어

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외부의 입김에 밀려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각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강조한다면 정책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

서 느낀 제일 큰 문제점은 "경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역시 전문가가 아닌 보좌관들을 데리고 한두달 만에 책 몇백권 분량도 넘는 서류더미들을 검토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처음부터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틀이 짜여진 불합리한 체계"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대체로 세출예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결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데, 결산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비 지출 등의 경우 잘못이 발견돼도 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안 심의를 부결처리해도 형식뿐"이라는 설명이다. 결산의 중요성에 대한 심위원의 지적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그 순간부터 그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말로 보인다.



심원구 의원

민주 16명 무소속 2명)이다. 그들의 활동은 어느 항목에서도 동료 의원들에 의해 주목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평균적인 의회활동을 한 의원의 경우에도 한번도 거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결과가 반드시 그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못했다는 평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활약 두드러진 의원 상당수가 초·재선

조사결과로 볼 때 야당위원의 활동이 돋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주요 기능이 정부를 견제하는 활동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주요 항목별로 두드러지게 활동한 여당 의원도 여러명 거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받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이다. 초·재선 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 특징이고, 그들은 연륜이 짧은 만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의원

에 여러번 당선될수록 의정활동이 침체된다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관련,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으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 민의에 부응하는 봉사정신과 역사 의식, 변화

에 대한 개방성, 윤리성, 발언에 대한 책임감 등이 지적된다. 능력뿐만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력이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고함 등의 행위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정의를 잊어버리는 정치인은 더욱 큰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자질론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의원의 행동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면을 간과하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의 헌정사를 살펴볼 때 군부의 정치 개입을 비롯한 초헌법적 변동 속에서 의회가 형편없이 위축된 적이 많았다. 비정상적 정치환경 속에서 우리의 의정사는 법안의 '날치기' 통과와 '거리 정치', 그리고 폭력대결로 점철돼 왔던 것이다.

박찬욱 교수(서울대·정치학)는 국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의원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에는 보수 시민단체인 ACU와 진보적 단체인 ADA가 매년 의원들을 평가하고, 중산

선거구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의원

- 1 이대업 이종찬 이철
- 2 김영구 유학성 임춘원 정동성 한광옥 황윤기
- 3 김문기 김용태 김우석 김종완 김종위 문정수 박경수 박용만 박진구 박희태 백찬기 서석재 徐廷和 심원구 심정구 윤재기 이금규 이병희 이정무 이종근 이택석 이한동 이해구 장영철 전용원 정동호 정창화 조순승 최기선 최정식 황명수 황병태 황성균

10회 이상 법안을 제출한 의원 (금년 정기국회 제외)

- 27 유인학
- 25 홍영기
- 20 박석우
- 16 김봉조 김충조 박상천
- 15 박영숙 조승형
- 14 강금식 김재태 이철용
- 13 신영국 오 탄
- 12 김동영 김인곤 이경재 조부영 최낙도
- 11 강삼재 이원배 이인재
- 10 박충순

3회 이상 예결특위에서 활동한 의원(금년 정기국회 제외)

- 5 서상목
- 4 김봉조 나창주 이강희 이기빈 이철용
정몽준 조부영 지연태
- 3 강신옥 고세진 권달수 김영진 김용태
김인영 김일동 김태식 김한규 문준식
박석우 박충순 백남치 석준규 심원구
안영기 유기수 유돈우 이상수 이용선
이 협 임우웅 장영철 전용원 정균환
정일영 정재문 최우룡 최이호 황운기

5회 이상 국민의 청원을 처리한 의원

- 11 최정식
- 10 박석우
- 8 박경수 이종근
- 7 강삼재
- 6 이상수 이 협
- 5 김봉조 박영숙 유승규

충·지식인 단체인 '커먼 코오즈' 역시 특수 이익집단으로부터 선거 경비로 누가 얼마를 지원받았는가에 대해 계속 추적하고 있다. 박교수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국회의원도 천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지금 여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의 개혁을 통해 정치시장의 독과점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1인당 20억~30억원을 뿌려야 하는 현재의 선거제도와 권위주의적 정당체제 아래에서는 재력이 약한 신진 엘리트의 정치권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의원 윤리와 관련한 국회

자체의 활동 강화가 권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회 윤리위원회가 의원 재산의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비리에 관련된 의원을 자체적으로 조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 등이다. 국회의 자정 노력이야말로 사법부 등 외부의 간섭을 줄이고 국회의 위상과 국회의원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나랏돈 감시해온 일급 경제통

예결위원직 5회 기록 KDI 출신... 전국구의원 중 직능활동 발군

민 자당의 서상목 제2 정책조정실장은 13대 국회에서 다섯 번 모두 예결위원으로 일한 유일한 의원이다. 그래서 그런지 민자당 전국구 의원 58명 가운데서 직능대표 기능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원장 재직중에 국회로 진출했다.

서 의원은 "의회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을 보면 결국 정부가 제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의회 기능이 너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산에 관한 정책질의가 본회의 때의 질의를 그대로 재탕 삼탕하는 것은 물론, 계수조정소위도 각 정당 및 각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적당히 반영하는 정도로 마감하는 등 지극히 형식화되어 있다"는 것이 4년 동안 예결위를 지켜본 그의 소감이다.

국회 기능에 대한 그의 논리는 한번쯤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과거의 국회는 권위주의체제에서 야기된 정치 투쟁이 주기능으로 작용했지만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점차 그런 기능이 퇴조하고 있으므로, 예산 심의라든가 입법활동 같은 원래 기능이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예결위의 상설화는 필수적이라고 보인다. 서 의원은 "예결위는 기본적으로 상임특위가 돼서 연중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질적으로는 각 상임위원으로 전

문위원 단 한사람만이 예산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셈인데 이 인력을 가지고 정밀하게 예산 심사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예결위를 돕는 전문 연구기관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92년도 예산에 대해 그는 "야당에서는 내년 예산이 초팽창 예산이라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지만,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사실 긴축재정이 필요했던 것은 작년과 금년이었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세입증가가 13% 선에 이를 것으로 보여, 추경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의 실질 규모도 13%~14% 증가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예산에 관한 당의 원래 입장은 늘리자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당에서부터 긴축재정을 역설했기 때문에 당이 이상하게 된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다"면서 "경제성 경비 2천1백억원을 줄이는 등 금년도 당정협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민자당내에서도 손꼽히는 경제통인 그는 지난 4월에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21세기 정책연구원'이 정경 유착이란 의혹을 사는 바람에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한차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



서상목 의원